

표절과 이중게재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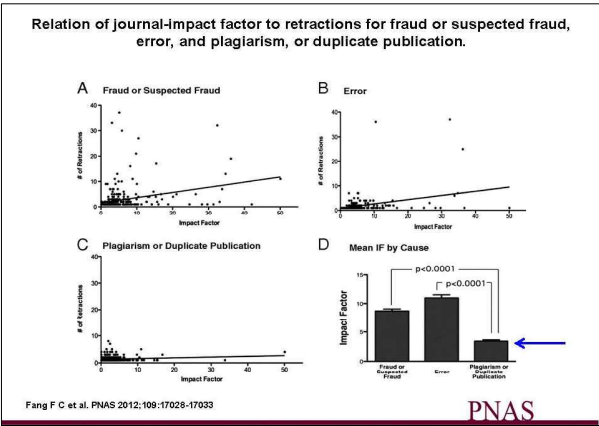
황 은 성

학술지의 국제화

= 학술지 논문들의 국제적 노출

피인용지수 ↑

논문의 문제점 발견 가능성 ↑



1.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

“표적(剽竊)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즉,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 두산백과

표절이 지탄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 Credit의 왜곡과 속임의 의도가 개입된 행위 (credit robbery)

→ 표절의 만연은 동료학자의 신뢰와 동료의식을 붕괴시킨다.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은 그 발전의 패턴은 물론 관련 법규나 제도조차 신속히 **다변화**되고 빠른 속도로 변화 된다. 이동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은 새로운 디지털 형태로 서구에서 먼저 개발된 것보다 늦게, 개발 경제주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지식의 보편화를 통한 시장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의 이 용에 무지한 사람들을 정보소의 계층으로 전락시켜 정보수단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야기시켜 온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정보격차는 소득집단별, 지역별, 교육수준, 연령별 등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중, 하위 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은 고령층과 농어촌에 나타났다**고 있다. 농어촌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격차 해소 계층으로 고령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에 대해 이용경험이 적었던 중장년층이 고령화되면서 이들이 정보화 소외계층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차이는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정보 격차는 정보격차에 대한 교육의 기회 불균형이나 학습 속도가 느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는 컴퓨터 사용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학습효과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있어 인터넷이 적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패턴은 관련 법규나 제도조차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보편화를 통한 시장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의 이 용에 무지한 사람들을 정보소의 계층으로 전락시켜 정보수단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야기시켜 온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정보격차는 소득집단별, 지역별, 교육수준, 연령별 등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중, 하위 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은 고령층과 농어촌에 나타났다**고 있다. 농어촌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격차 해소 계층으로 고령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에 대해 이용경험이 적었던 중장년층이 고령화되면서 이들이 정보화 소외계층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차이는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정보 격차는 정보격차에 대한 교육의 기회 불균형이나 학습 속도가 느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는 컴퓨터 사용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학습효과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있어 인터넷이 적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

다.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이며, e-비즈니스는 기업활동에 해당하며, 디지털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e-활동(e-activity)을 의미한다. (Customer) 신용(Credit) 등이다.

정보격차 (Information Divide)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와 정보격차의 현상을 말한다.

김정민, "고령층의 정보격차: 정보격차 경감효과분석", 『대한노년학회지』, 2006(19)

다. 좀 다른 유형의 복제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은 그 발전의 패턴은 물론 관련 법규나 제도조차 신속히 **다변화**되고 빠른 속도로 변화 된다. 이동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은 새로운 디지털 형태로 서구에서 먼저 개발된 것보다 늦게, 개발 경제주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지식의 보편화를 통한 시장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의 이 용에 무지한 사람들을 정보소의 계층으로 전락시켜 정보수단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야기시켜 온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정보격차는 소득집단별, 지역별, 교육수준, 연령별 등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중, 하위 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은 고령층과 농어촌에 나타났다**고 있다. 농어촌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격차 해소 계층으로 고령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에 대해 이용경험이 적었던 중장년층이 고령화되면서 이들이 정보화 소외계층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차이는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정보 격차는 정보격차에 대한 교육의 기회 불균형이나 학습 속도가 느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는 컴퓨터 사용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학습효과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있어 인터넷이 적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패턴은 관련 법규나 제도조차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보편화를 통한 시장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의 이 용에 무지한 사람들을 정보소의 계층으로 전락시켜 정보수단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야기시켜 온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정보격차는 소득집단별, 지역별, 교육수준, 연령별 등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중, 하위 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은 고령층과 농어촌에 나타났다**고 있다. 농어촌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격차 해소 계층으로 고령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에 대해 이용경험이 적었던 중장년층이 고령화되면서 이들이 정보화 소외계층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차이는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정보 격차는 정보격차에 대한 교육의 기회 불균형이나 학습 속도가 느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는 컴퓨터 사용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학습효과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있어 인터넷이 적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

다.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이며, e-비즈니스는 기업활동에 해당하며, 디지털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e-활동(e-activity)을 의미한다. (Customer) 신용(Credit) 등이다.

정보격차 (Information Divide)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와 정보격차의 현상을 말한다.

김정민, "고령층의 정보격차: 정보격차 경감효과분석", 『대한노년학회지』, 2006(19)

제대로 된 전문인용 방법

보은적인 치료(patuitive care)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생명을 위협이 있는 질병에 대한 전력이 내려졌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것은 치료가 계속 시도되고 있는 동안에도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보장한다.

지난 30년 동안 죽어 가는 사람과 가족을 잃은 사람에 대한 간호는 개선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똑같이 중요한 정도로 죽은 자와 가족을 잃은 자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 우리를 자신을 더욱 나아지게 하였다. 나는 죽음에 대한 연구는 삶을 증진시킨다는 어귀가 있는 슬라이드로 내 모든 강의를 시작한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경제적 자원의 한계와 단기적인 의미에서의 시간 또는 경제적 한계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권 내에서 언제나 오 년이라는 삶을 주머니에서 꺼내듯이 가질 수 있으며 또 다른 십 년이라는 관계를 쉽게 가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 로버트 캐스터바움(Robert Kasterbaum)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죽어 간다는 것, 죽음 그 자체 그리고 예도를 인간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최근 몇 년까지의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에서 발표된 연구와 텍스트, 광범위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오늘날에 이 르기까지 죽음에 대한 학문들 거의 접하지 않고서도 미래에 학자나 실무자 (practitioners)가 될 사람들 역시 정규교육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다 [11, p.79].

죽어 간다는 것과 슬퍼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란 것이 생적으로 전이된 달기적 상태라는 것을

John D. Morgan (외재영 번역), 임종학의 의미와 과제, 한국노년학회 국제학술세미나, 2000.

라. 포괄적 인용

텍스트에서 인용할 글 각각에 대해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글의 맨 앞 또는 맨 뒤에서 포괄적으로 출처표시를 하는 행위.

이 글은 주로 김대표 (2008)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흔히 일어나는 실수. 그러나, 표절이다!

어느 정도면 표절인가?

Appropriate Use of Other Authors' Sentences
November 18, 2006 to November 22, 2006

I have one question about using other papers in my manuscript. I want to insert some part from another published paper that I found via PubMed.

Do you allow the insertion of a sentence taken from someone else's paper (without re-wording)? Is referencing enough for inserting, or must I rewrite the paragraph of the other paper in my own words?

Amir Bahrami Ahmadi
External Editor, *McGill Journal of Medicine*

1) Looking at published medical articles closely, through the lens of applied linguistics (my background), I think we have to say that medical journal editors are indeed highly tolerant of one-sentence copying, provided the reference is given.
2) NEVER THE LESS, one-sentence copying ("patch writing" it's sometimes called) creates problems in writing cohesion, and it is to be avoided EVEN IF the journal editors do tolerate it.
3) SO, paraphrasing is important not just to do a perfunctory re-write to avoid an accusation of plagiarism, but to make sure that the cited information is cohesively interwoven into the expression of the present author's own messages.

-Mary Ellen

Just put it in quotes and reference the source properly. I do agree with Mary Ellen that you need to make sure that it fits smoothly within your paper.

-Diana J. Mason, Editor-in-Chief, *American Journal of Nursing*

WAME
www.wamejournal.com

마. 데이터 표절

Development of Transgenic Tall Fescue Plants from Mature Seed-derived Callus via Agrobacterium-mediated Transformation (Asian-Aust. J. Anim. Sci. 2004, 19(17), No. 19: 1390-1394)

Production of transgenic orchardgrass via Agrobacterium-mediated transformation of seed-derived callus tissues (S.R. Lee et al./Plant Science 171 (2006) 406-414)

Dear Editors of Plant Science,
I was reviewing a paper for GCB Bioenergy by Byung-Hyun Lee from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and, in the course of my review, read two other papers by this group, which were essentially "cookie cutter" plant transformation papers, but on different species. This is not best practice, but it is also not misconduct.

Attached here are two papers containing the same figure, but on different species.
However, please notice Fig 2A of both the attached papers (Figure 1 is the same plasmid cartoon in both papers—it is also Fig 1 of the GCB Bioenergy ms), the 2006 Plant Science orchardgrass paper shows a close up of the fescue (or whatever it really is) from the 2004 paper, and therefore at least one of these papers has falsified data.
I have told the folks at GCB Bioenergy about this and recommended that the current submission be rejected.

<표 1> 복합운동 12주후 신체구성 변화

Variable	Group	Baseline	12weeks
Height (cm)	Control	163 ± 3.13	163.0 ± 3.46
	Exercise	162 ± 4.46	162.0 ± 6.57
Body weight (kg)	Control	58.2 ± 6.75	58.9 ± 7.28
	Exercise	58.0 ± 5.59	57.4 ± 4.25
%body fat (%)	Control	26.1 ± 3.75	26.7 ± 3.85
	Exercise	25.3 ± 3.02	24.9 ± 3.17
Lean body mass (kg)	Control	37.2 ± 1.90	36.1 ± 2.67
	Exercise	36.5 ± 3.00	38.1 ± 3.17
Total fat volume (ml)	Control	977.2 ± 36.61	1041.7 ± 45.30
	Exercise	971.9 ± 26.29	957.7 ± 26.38
Visceral fat volume (ml)	Control	301.3 ± 20.71	434.4 ± 19.69
	Exercise	307.7 ± 11.50	326.9 ± 9.25
Subcutaneous fat volume (ml)	Control	587.7 ± 19.09	637.7 ± 19.64
	Exercise	584.2 ± 30.61	572.7 ± 19.43
VIS	Control	0.69 ± 0.28	0.72 ± 0.19
	Exercise	0.70 ± 0.32	0.66 ± 0.22

<표 2> 복합운동 12주후 MMSE, 피고인수인행방의 골다공증률 및 B-amyloid 변화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MMSEtotal	Control	27.2 ± 1.11	27.0 ± 1.00
	Exercise	27.1 ± 1.21	27.7 ± 0.76
MMSEcognition	Control	19.1 ± 0.79	19.7 ± 0.28
	Exercise	19.1 ± 0.79	19.7 ± 0.28
MMSEmemory	Control	8.2 ± 0.37	7.3 ± 0.72
	Exercise	8.0 ± 0.42	8.0 ± 0.48
LDL-C (mg/dl)	Control	131 ± 28.96	131 ± 34.71
	Exercise	128 ± 44.47	135 ± 28.11
HDL-C (mg/dl)	Control	45.0 ± 10.54	45.8 ± 6.50
	Exercise	49.2 ± 15.16	50.2 ± 15.51
β-amyloid (pg/ml)	Control	0.17 ± 0.04	0.20 ± 0.05
	Exercise	0.24 ± 0.10	0.17 ± 0.03
Insulin (μU/ml)	Control	17.28 ± 4.47	18.16 ± 2.81
	Exercise	16.11 ± 5.42	16.81 ± 3.04
DHEAs (mg/dl)	Control	57.2 ± 36.11	43.8 ± 25.10
	Exercise	47.5 ± 24.65	56.8 ± 27.78

표 3.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

Variable	Control	Exercise
Age(yr)	78.4 ± 1.3	79.2 ± 1.2
Height(cm)	151.3 ± 1.1	149.2 ± 1.4
Body weight(kg)	58.2 ± 1.7	58.0 ± 1.5
Body fat(%)	35.2 ± 1.7	32.6 ± 1.3
Lean body mass(kg)	37.2 ± 1.9	36.5 ± 1.6
MMSE	27.3 ± 1.2	27.8 ± 0.9

표 4. 복합운동 12주후 MMSE와 피고인수인행방의 변화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MMSEtotal	Control	27.2 ± 1.11	27.0 ± 1.00
	Exercise	27.1 ± 1.21	27.7 ± 0.76
PeakVO2(ml/min)	Control	1063.1 ± 51.39	893.2 ± 24.25
	Exercise	1091.4 ± 65.25	1134.1 ± 63.90
PeakVO2(ml/kg/min)	Control	18.2 ± 0.47	15.4 ± 0.42
	Exercise	17.3 ± 0.54	19.7 ± 0.54

표 5. 복합운동 12주후 골다공증률, β-amyloid 및 DHEAs의 변화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Tibia areal bone mineral density (g/cm²)	Control	1.046 ± 0.1338	1.054 ± 0.1354
	Exercise	1.065 ± 0.1409	1.081 ± 0.1327
Lumbar areal bone mineral density (g/cm²)	Control	1.157 ± 0.1646	1.161 ± 0.1671
	Exercise	1.181 ± 0.1729	1.137 ± 0.1629
HDL-C (mg/dl)	Control	49.0 ± 10.54	49.8 ± 6.50
	Exercise	49.2 ± 15.16	50.2 ± 15.51
β-amyloid (pg/ml)	Control	0.17 ± 0.04	0.20 ± 0.05
	Exercise	0.24 ± 0.10	0.17 ± 0.03
Insulin (μU/ml)	Control	17.28 ± 4.47	18.16 ± 2.81
	Exercise	16.11 ± 5.42	16.81 ± 3.04
DHEAs (mg/dl)	Control	57.2 ± 36.11	43.8 ± 25.10
	Exercise	47.5 ± 24.65	56.8 ± 27.78

표 6. 진후 차이값에 대한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LBM	PeakVO ₂	PeakVO ₂ /kg	HDL-C	LDL-C	β-amyloid	DHEAs
LBM(kg)	1.000	-0.088	0.140	0.319	-0.012	-0.073	0.569*
PeakVO ₂ (ml/min)		1.000	0.957**	-0.444	-0.655	-0.929**	0.705**
PeakVO ₂ (ml/kg/min)			1.000	-0.401	-0.661	-0.894**	0.624
HDL-C(mg/dl)				1.000	0.198	0.465	0.350
LDL-C(mg/dl)					1.000	0.799*	-0.015
β-amyloid(pg/ml)						1.000	0.178
DHEAs(mg/dl)							1.000

<표 7> 진후 차이 값에 대한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LBM	PeakVO ₂	VFV	SFV	LDL-C	Insulin	β-amyloid	DHEAs
LBM(kg)	1.000	0.140	0.366	0.012	0.179	-0.073	0.569*	
PeakVO ₂ (ml/kg/min)		1.000	0.473	-0.026	-0.661	-0.471	-0.894**	
VFV(ml)			1.000	0.659*	0.591*	0.699*	-0.561	
SFV(ml)				1.000	0.200	0.512	0.512	
LDL-C(mg/dl)					1.000	0.429*	0.799*	
Insulin(μU/ml)						1.000	0.671*	
β-amyloid(pg/ml)							1.000	
DHEAs(mg/dl)								1.000

다. 논문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먼저 발표된 논문의 조사기간이나 조사대상의 수를 늘려서 조사하여 비슷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20명을 대상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동일한 가설에 대해 이번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동일한 조사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발표

그러나, 새 조사가 먼저의 연구결과를 뒤엎을 것으로 생각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다르다. (예: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었거나, 조사방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중복 게재 여부의 판단

대규모 임상 혹은 연차 연구로 명백히 여러 질문을 가지고 있어서 한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힘든 경우는 분절 출판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연구에서 연구 결과가 겹친다면 이 논문을 하나로 합쳐서 좀 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

1. 유사한 가설 - 조사대상 집단 관련 독립, 종속 변수가 동일한가?
2. 유사한 표본, 수 - 연구재료, 실험동물이나 인간대상자의 90% 가 동일한가?
3.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법 - 자료수집, 분석, 제시 방법이 같거나 유사한가?
4. 유사한 결과 - 양이나 질 적인 면에서 거의 동일한가?
5. 최소한 1명의 저자가 동일한가?

(Mojon-Assi, Jiang, Wagner, Mojon. Redundant publications in scientific ophthalmologic journals: the tip of the iceberg? Ophthalmology, 2004; 111(5): 863-866)

6. 각각의 논문은 얼마나 큰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가?
(두번째 논문에는 새로운 가치있는 정보가 있는가?)
7. 두 논문을 합치면 완성된 좋은 정보가 만들어지는가?

이중 게재 또는 자기표절이 왜 문제가 되는가?

"Many researchers say that republication without citation violates the premise that each scientific paper should be an original contribution. It can also serve to falsely inflate a researcher's CV by suggesting a higher level of productivity. And although the repetition of the methods section of a paper is not necessarily considered inappropriate by the scientific community, "we would expect that results, discussion and the abstract present novel results" (Nature 468, 745 (2010))

라. 번역출판

dongA.com
분야 : 총 2009.11.4(수) 03 편집 편집 상태 : 편집 링크 링크 링크 링크

국내 유명 학술지 해외 논문 무단기 표절

국내 논문 해외 과학자들에게도 인용되는 유명한 국내 학술지에 다수의 표절 논문이 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 교수는 지난달 30일 학회 측에 논문이 중대한 오류가 있어 철회를 요청한다며 해외인선서를 받고 학회 측은 해당 논문을 1월 철회했다. 문제가 된 논문들은 2007년 12월 26일 게재된 논문들인데도 번역권이나 원문을 번역해 곁잡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을 번역해 게재할 경우 원 논문과 참고 논문을 밝혀야 하지만 이들 논문? 그런 내용이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날 정문 과학자들의 인터넷 게시판인 '브릭(BRIC)'에서 최종 문제가 제기되고 이틀 강 교수가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 교수는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술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과 세계 학계에서 인용을 받으려면 일정량의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신생 학술지에서 논문이 부록해 학생들에게 외국 논문을 번역해 올리도록 허가나 다른 연구자들이 번역해 올린 표절 논문을 그대로 실었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정식 학술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에 4회 발행하고 매회 7건 이상의 논문을 실어야 한다. 광 교수는 "다른 (표절) 논문들도 찾고 있으며 모두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표절과 관련된 이슈들

- #### 1. 표절에서의 예외 항목
1. 학위논문 전체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지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학술지에 짧은 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6.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집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7.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서 게재·출간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⑨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9. 일반적인 사실로 간주되는 글은 표절의 대상이 아니다.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내 학위 논문의 학술지발표는? 내 용역보고서의 학술지발표는?

학위논문: dissertation; thesis
논문: research paper; journal article

An article is a stand-alone section of a larger written work appearing in magazines, newspapers, academic journals, the Internet or any other type of publication. Much, though not all, academic publishing relies on some form of peer review or editorial refereeing to qualify texts for publication. And, it has far greater size of readers through the world and academics.

두 경우 모두 관례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근래 들어서 연구실적의 평가상 이중업적인 시비에 기인하는 문제 때문이다.

2. 이차 출판 : 중복출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이차 출판의 가치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미 출판하였던 학술지와 이제 새로이 출판하려고 하는 학술지의 두 편집인 모두가 승인을 한 경우 이차출판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중복출판이 허용되는 범주

1. 다른 언어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중복 출판
2. 다른 학문 영역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중복 출판

이차출판은 일차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제목이나 각주에 이것이 어떠한 원전의 2차 출판물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보통 일차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출판간격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과학논문에서 어디까지 자기표절인가?

Method Section의 Recycling

논문을 쓸 때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은 같은 실험법을 사용할 때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절이 아니냐는 질문이 할 수 있고, 예전에 배웠던 Methods Section 때문에 표절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길게 적어 놓은 연구방법을 다시 쓰는 것은 명백한 표절입니다. 그러나 이전 논문을 인용하면서 축약하여 자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실험기기, 조건 등에 맞게 실험방법을 다시 작성하여 그것을 후속논문에 사용할 경우 표절이 아닙니다.

<http://www.wame.org/wame-listserve-discussions/sanctioning-an-author-who-has-plagiarized-what-is-self-plagiarism>

의 사이트 (WAME; 세계의학저널 편집자협회)를 보면 Method Section에 대한 토론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가 자신의 예전 논문에서 썼던 Method Section을 똑같이 다시 쓰는 것은 허용하며 표절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I would go further and suggest that it should be made explicit that copying of details of methodology between one's own papers is not scientific misconduct, and indeed it may be the best approach to make clear that the methods were identical."

- BioWave Vol. 10, No.18. [연구진실성] 연구부정행위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하) (경보출처: BRIC 소리마당)

과학논문 쓰기 연습의 핵심

1. 자기의 글 쓰기
 - 글쓰기에서 자존심을 갖기, 강한 주장을 전개하기
2. 과학적인 글 쓰기
 - 나타난 것을 모두 빼뜨리지 말고 말하기, 근거에 기반해 주장하기, 철저히 인용하기
3. 정확한 글 쓰기
 - 문법적 오류를 줄이기,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기, 문장에 논리를 갖추기

